

# 광주 공유자원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회의실·주차장서 자전거·장난감까지 2096개 市 포털사이트 '공유 광주' 개설 서비스 시작

회의실과 강의실, 주차장부터 자전거, 장난감까지 5개 분야 2096개의 공공·민간 자원이 시민들에게 공유된다.

광주시는 11일 “공공기관과 민간이 제공하고 광주시민이 이용하는 공유자원의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공유광주(http://공유광주.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유광주는 나눔과 공유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선 6기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공유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다.

제공되는 공유자원은 주차장, 시설 공

간(회의실·문화체육시설 등), 화장실, 장난감까지 5개 분야 2096개다.

회의실·강의실 197곳, 강당·공연장 41곳, 체육시설 367곳, 주차장 150곳, 화장실 1219곳, 자전거 공유 56곳, 장난감 공유 3곳 등이다.

공공기관 자원은 390개 기관 1374곳(66%)이며 종교시설, 병원, 주유소 등에서 제공하는 민간 공유자원은 616개 시설 722곳(34%)이다.

공유자원은 광주시민 또는 단체, 동호회 회원 등 누구나 유·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유자원을 손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인 공유광주를 방문하면 된다.

공유광주는 시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유자원을 손쉽게 검색(자원현황·장소·이용시간·이용료)하고 목적지까지 경로를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공유광주 사이트는 또 국내외 공유소식을 알려주는 ‘뉴스·소식’ 공유단체별 활동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공유단체 활동’, 공유단체 및 공유자원의 분포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안내지도’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공유자원의 세부 이용방법과 스마트폰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하는 ‘공유자원’, 공유 관련 행사나 캠페인 등을 알려

주는 ‘공유달력’, 시민끼리 공유 주고받기와 지식공유 빛고를 열린강연·각종 소식을 나누는 ‘커뮤니티’의 코너도 마련돼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공유광주 상징 로고’를 제작해 공유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시민 참여도 끌어낼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유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공유연구모임도 구성할 방침이다.

김재철 광주시 참여혁신단장은 “공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 참여형 공유 이벤트 문화사업도 마련하겠다”며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웃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공유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김치 포장재 바꾸고 해외 마케팅 강화

### 온도 유지 소형 용기 개발...베트남서 홍보 행사

광주시는 11일 “광주 김치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포장(패키지)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광주 김치 공동브랜드 ‘김치 光’ 포장을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기존 포장재는 유통에 따른 온도 유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새로운 포장재는 장시간 온도 유지가 가능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기능성과 경제성을 갖췄다.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수출용 소포장 용기(250g·500g)를 개발하고 현재 금형 제작 중이다. 김치는 발효식품의 특성

상 수출 포장재를 제대로 확보하기 쉽지 않다.

시는 이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공격적인 현지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 달 광주 명품김치사업단과 함께 베트남과 중국에서 홍보행사를 열기로 했다. 중국 측은 10월에 열리는 제22회 광주 세계김치축전에 교차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 식품수출 지원정보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광주김치 수출액은 19만4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늘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 나세요  
광주시 서부소방서 직원들이 지난 10일 서구 광안교 다리 아래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수박과 생수를 전달하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다.

## 염주실내빙상장 15일 광복절 무료 개방

### 광주도시공사, 스케이트화 등 장비도 무료 대여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오는 15일 광복절에 염주실내빙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번 무료개방은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사기진작 방안’과 광복 70주년 경축 분위기를 확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빙상장에서는 이날 스케이트장 무료입장에 이어 스케이트와 무료대여 등 모든 장비 일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부담이 전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스케이트장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입장 마감시간은 오후 5시까지 빙상장에 도착하면 이용할 수 있

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에는 휴장한다.

한편 실내빙상장에서는 당일 많은 시민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관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배치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의무실, 휴게음식점, 라카룸 추가 설치 등 편의시설을 늘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실내빙상장 김도형 소장은 “스케이트장 이용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용객이 몰려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들께서는 이 시간대를 피해 입장하게 되면 여유로운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다시보는 U대회 감동의 순간들

### 광주시 계간지 '광주속삭임' 여름호 발간

광주시가 광주의 역사·문화와 불거리 등을 담은 계간지 ‘광주속삭임’ 여름호를 발행했다.

‘광주속삭임’은 광주의 문화, 예술, 여행, 인물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수록하고 있으며, 전국의 공공기관과 은행, 대형병원, 특급호텔 등에 배부돼 광주를 소개하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여름호는 4월 발간된 봄호에 이은 두 번째로, 7월14일 폐막한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이야기를 되짚고 13일간의 감동의 순간들을 화보로 담았다.

여름 특집으로 마련한 ‘다정다감 남도, 세계를 통하다’에서는 KTX로 좁아지고 U대회로 넓어진 광주·전남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다. 총장로와 동명동, 대인에 솔아시아 등 도심여행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더욱 맛을 발하는 무등산 역사길, 팜투어로 화려하게 부활한 남도의 누정문화 등 세계를 매료시킨 광주·전남의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무더위를 날릴 남도의 섬 6곳에 관한 이야기도 관심을 끈다.

‘열린 광주, 나눔&공유’에서는 나눔의 DNA가 가득한 광주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외에도 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생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10월 개막하는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관한 소식도 담고 있다.

광주를 기반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젊은 예술인들의 이야기는 봄호에 이어 여름호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번호엔 퓨전국악그룹 루트머지의 흥운진 대표와 설박 산수화의 경지를 연 한국화가 설박이 그 주인공이다.

‘광주속삭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 역사 등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또는 e-book(http://news.gwangju.go.kr/magazine/2015\_02/EBook.htm)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지하철역 쉼터서 무더위 식히고 가세요

### 광주도시철도공사 5곳 조성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주요 역에 무더위 쉼터를 조성,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광주도시철도 상무역, 남광주역, 금남로4가역, 농성역, 상무역, 송정공원역 5개역 대합실에 평상을 설치

하고, 대형선풍기 및 냉온수기를 비치하는 등 무더위 쉼터를 조성했다.

개장 첫날인 지난 10일에는 상무역 등에선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부채, 생수 등을 나눠주는 쿨 서비스도 실시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가 연일 폭염으로 지친 시민들의 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시농기센터 장류 담그기·토마토 가공 교육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전통 장류 담그기와 토마토 가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일 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4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생활문화교육관에서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 전통장류 가공 교육’을 주제로 전통 발효 장(막장, 집장) 담그기를 시연 및 실습교육을 한다.

또 광주·전남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를

활용한 ‘자원의 맛 착하고 바른 먹거리’ 토마토 활용 가공 교육도 내달 4일부터 총 3회 운영된다.

2개 교육과정 모두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는 2만원이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gwangju.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나는 몸신이  
이다**

이홍식 엄영란

조인희 변우민

MC / 정은아

CHANEL A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몸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